

연변 조선족의 문화접변 실태 연구

조 복 희*(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 태 수 (연변대학교 교수)

연변지역은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독특한 환경에 놓여 있어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환경 속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국외에서도 계승되고 있는 생태학적 현장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적응, 존속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접변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하였다.

연구대상은 중국 연변 자치주 연길시의 조선족 소학교 1개교, 유치원 5개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이들 부모 454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민족 정체감, 남북한 방문여부, 중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모님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물었고 문화접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Mendoza 와 Martinez가 개발하고 이혜승(2000)이 사용한 The Cultural Life Style Inventory를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 조선족들은 가정에서 가족간의 대화를 나눌 때에 대체로 조선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관계 역시 주로 조선족과 맺고 있으며 문화적 정체감과 친밀감 또한 조선족에 가까운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부모의 연령, 직업,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문화접변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수준에 따라서 문화접변의 각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족자치주를 중심으로 살아오는 중국 조선족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고 있었다.